

군산 '배달의 명수' 시장점유율 30%

출시 4개월만에 가맹점 1019곳·회원 11만명 육박 주문 건수 12만2800여건...29억3000여만원어치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가 출시 4개월 만에 가맹점 1000곳을 돌파했다. 가입 회원도 11만명에 육박, 대부분의 집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가 가맹점과 회원, 주문 건수 등을 꾸준히 늘리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가맹점은 현재 1019곳으로 목표로 삼았던 1000곳을 넘어섰다. 가입 회원도 10만7400여명에 이른다. 군산시 전체 가구수가 11만8000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집이 가입한 셈이다.

주문 건수는 12만2800여건, 금액으로는 29억3000여만원어치다.

군산시는 전체 배달 앱 시장의 30% 가량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13일 출시한 지 4개월여만의 성과다.

'배달의 명수'는 자영업자에게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받지 않으며, 소비자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음식값을 8%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간 배달 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런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음식점 외의 업종으로 공공 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음식배달앱 '배달의 명수' 로고. "음식점 외의 업종으로 공공 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새만금개발공사와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지난 22일 새만금 육상 태양광3구역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본격화

1451억원 들여 내년 말 완공

새만금 육상 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2일 새만금 육상 태양광 3구역 발전 사업을 담당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협약식을 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1451억원을 들여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일원에 99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내년 2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한다. 이어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 1월부터는 상업 운영에 들어간다.

공사에는 전북 업체가 40% 몫으로 참여하고, 전체의 50%는 지역 기지재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시행법인(SPC)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주)호반건설, 현대건설(주), 푸른전력(유), (주)솔라문, (주)레나, (주)군장종합건설, 케이비소프트산업(주) 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 등 10개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코로나19 여파 31년 전통 '정읍사 문화제'도 축소

즐기는 축제서 안전한 축제로 시, 제례 중심 소규모 행사 진행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정읍사 문화제'를 대폭 축소한다고 23일 밝혔다.

31년간 전통을 이어온 정읍사 문화제가 축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정읍사 문화제는 9월 26~27일 이틀간 정읍사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제 제전위원회는 최근 긴급 이사회 회의를 열고 관람객의 밀집이 예상되는 기념식과 가요제, 각종 체험 행사, 농특산물·간식·먹거리 부스 운영 등을 취소했다.

문화제는 의례와 여인 제례, 백제 여인의 부덕을 기리는 부도상(婦道賞) 시상 등 문화제 명맥을 잇기 위한 제례 중심으로 축소돼 진행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는 오는 9월 26~27일 개최하는 '정읍사 문화제'를 제례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지난해 정읍사 문화제 중 채수 의례. <정읍시 제공>

안숙선 명창 등 출연 명품 국악공연 '굿 보러 가자'



내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는 명품 국악공연 '굿 GOOD 보러 가자'를 25일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연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이 마련한 '굿 GOOD 보러 가자'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지역 전통예술인 등 최고 명인이 참여해 꾸미는 한국문화재단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국내외 78개 지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남원공연에서는 남원이 낳은 국가무형문화재 안숙선 명창(사진), 김정만 명고, 남원농악보존회 류명철 명인 등이 무대에 오른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무사무려(無事無慮)'란 주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명인들이 선사하는 무대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이 재난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바라는 기원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한국문화재단 대표 진옥섭 이사장의 맛갈 나는 해설과 함께 진행돼 공연을 쉽고, 알차게 만날 수 있다.

정명희의 남원살풀이춤, 권원태의 줄타기, 김운태의 채상소고춤 등도 펼쳐진다.

한국문화재단은 24일에는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방문해 국악을 선사하는 '찾아가는 공연'을 소설 혼불의 배경인 서도역에서 진행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죽도항 어촌뉴딜300 사업' 본격 추진

100억 투자 해상보도교 등 설치 획일적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지양 자연경관·갯벌 자원 등 활용 차별화

고창군이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 '죽도항 어촌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창군은 지난 17일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체 자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민 대표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죽도항 어촌뉴딜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해 어촌뉴딜 기본계획 수립 전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사업계획 구상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은 획일적인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의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내죽도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갯벌 생태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약 100억원을 투자한다.

고창지역 유일의 유인도인 죽도에 주민 숙원 사

업인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한 해상보도교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갯벌전망대 리모델링, 갯벌건강공원 정비, 폐교를 리모델링한 탐사르 생태학교 조성, 어항 경관 조명과 안전시설 설치, 반집 정비 등 마을경관 개선사업도 진행한다.

라남군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어부와 관광객이 즐거운 어촌마을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어촌뉴딜 사업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며 "내년 신규 어촌뉴딜 공모사업(고리포·상포·후포권역)에도 고창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 스타일

Classic

클래식 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 스타일